지역 소식통

정읍시, 장애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 정비사업 완료

정읍장애인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 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과 시비 2억1500만원 모두 총 7억15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것이다.

시는 올해 4월초 공사에 착공, 5월말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 지난 23일까지 장애인용 하드코트 1면과 일반인 겸용 인조잔디 1면을 설치하고 펜스 등 주변 노후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시는 최종적인 점검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날씨에 관계없이 편하고 쾌적하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됐고, 주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평동 체련공원에 위치한 장애인테니스장은 지난 1998년 1500㎡로 조성됐다. 2007년 우레탄코트를 설치, 그간 사용돼 왔으나 코트에 균열이 생기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고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읍=김대환기자

삼성화재RC '500원의 희망선물' 255번째 입주식 열려

삼성화재RC(Risk Consultant)가 지원하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한 '500원의 희망선물' 255번째 입주식이 지난 26일 있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화재 호남사업부장 구본열 상무와 전주지역단 이승진 단장, 박경수RC등 30여명이 참석했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삼성화재 RC가 장기보험 체결 시 500원씩 기부해 조성된 기금으로 장애인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월 평균 2가구씩 진행되고 있다.

6월 현재 총 1만 6000여명의 삼성화재 RC들이 54억5000여만원을 모아 전국 각지 254곳의 장애인 가정과 시설을 개선해줬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255호로 선정된 장애인은 우모씨(지체 1급, 농소동거주)이다. 문턱을 없애고, 싱크대를 낮췄으며 화장실 변기도 새로 설치했다.

우씨는 "최근 함께 살고 있는 노모가 치매에 걸리면서 가사 분담이 늘었는데, 일상 생활이 편리해져 좋다"며 고마움을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한국인의 본향으로 키워가겠다"

박우정 고창군수, 기자간담회 "군민 행복한 자연생태도시 완성할 것"

"군민과 화합·협력으로 소통하며 사통팔달의 찾아오기 쉬운 고창군, 와서 오래도록 머물러 가는 고창군을 만들며 지역발전에 보다 구체적 기회를 가져오고 결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하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다해 고창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자랑스런 한국인의 본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체감하는 군정을 위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고 군민들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숙원사업 해소에 힘써 317억원을 들여 구수·건동·금평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비롯해 160억원을 들여 고창읍 교촌과 고창읍성 주변 급경사지를 비롯 상습침수지역 정비 등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며 "고창군이 사상 처음으로 군 예산 5천억 시대를 열고 국가예산 927억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보다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활체육진흥에도 힘써 군립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비롯해 생활축구경기장, 생활야구경기장, 전천후 실내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 등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탄탄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았으며 스포츠마케팅에 집중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이미지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고 말하고 "농축어업도 스포츠와 방송매체, 온라인을 연계하여 마케팅을 매치해 고창군의 명품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려 소득증대로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축제기간에만 50여만명이 찾아온 '고창청보리밭축제'나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고창깻벌축제', '모양성제' 등 고창의 농특산물과 자연, 문화유산을 축제화하면서 고창의 사계절을 즐기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면서 지역을 알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며 소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이를 경쟁력 삼아 자연생태환경을 잘 보전하고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고창군만의 특색 있는 자원이 되고 있다"며 "농축어업을 6차 산업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고 해안자원, 내륙자원, 문화관광자원들을 연계·결합해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선 6기 고창군정은 변함없이 아름답고 청정하며 오래 머물고 싶은 고창군으로 완성시켜 갈 것"이라며 "국도 77호선의 조기건설과 국지도 15호선 조기착공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서울,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어디에서든쉽고 편리하게 고창군에 찾아와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창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민 생활 문제 해결 앞장

부안군의회, EEZ 내 바닷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반영' 재촉구 건의문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닷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과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각 정당 대표,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

부안 군의회는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에서 최근 기후변화, 중국어선의 불법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토교통부의 골재채취허가 연장으로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골재채취원 다변화 정책을 포함한 장기골재수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안 군의회 오세웅의장은 "제7대 부안 군의회는 항상 군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는 물론 유관 기관들과 협조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군의회는 지난 2015년에 김제~부안 간 송전철탑 공사에 대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부안남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송전철탑에 대해 집행부, 교육청, 전라북도 등 연계해 한국전력공사의 당초 공사계획을 변경시켜 '부안남초등학교에서 스포츠파크까지'의 1.4km 구간을 지중화가 되도록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모양마을 사람들'

다양한 부대행사 보고 혜택 누리자!

고창농악보존회의 '감성농악' 두 번째 시리즈 '모양마을 사람들'이 고창의 맛집과 숙박업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창에서 먹고! 놀고! 자고!'(먹·놀·자) 제휴 프로그램은 물론 스탬프투어, 토요문화놀이터 등의 부대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부대행사는 '고창읍성 스탬프 투어 모양마을 사람들을 찾아라!' 고창읍성에 주요 거점 다섯 군데를 지정해 그곳에서 도장을 찍어오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다. 그중 공연 티켓을 소지한 관람객 선착순 10명에게는 귀여운 고창농악 캐릭터가 그려진 향초를 선물로 증정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창읍성 잔디마당에서 펼쳐지는 부대행사 '토요문화놀이터'에서는 투호, 윷놀이, 연날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타시군에서도 성공한 관광 제휴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먹·놀·자'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보다 많은 31개 업체와 제휴를 맺어 공연도 보고 혜택도 누리는 관광 제휴 프로그램이자 성공한 민·관협력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모양마을 사람들'은 2017년 전라북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의 고창 대표 작품으로 선정된 미스터리 감성농악으로 도로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서 당산나무가 베어질 위기에 처한 모양마을 사람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을굿을 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극과 농악 그리고 기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품은 전라북도,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스텝협동조합, 진농식품, 국순당고창명주가 협찬사로 참여하는 상설공연으로 5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에 고창읍성 내아에서 펼쳐진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30일 정읍 도시재생 시민포럼 개최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포럼이 열린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북과학대학교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시민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정읍시립중앙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정철모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정석 서울시립대교수가 '도시가 행복해야 내 삶도 행복하다'를,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 '삼공(공정, 공익, 공동체)원칙으로 시작하는 도시재생'을, 마지막으로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사장이 '더불어 함께(협치)의 조건'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외에도 김한수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성주 (주) 도시건축 이래 대표가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공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읍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시재생 시민포럼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모양지구대, 물놀이 위험지역 사전점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는 피서철을 앞두고 물놀이 위험지역 사전 점검으로 여름철 익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피서객이 운집할 수 있는 계곡·소류지·저수지를 직접 경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물놀이 가능지역과 위험지역을 구분, 물놀이 위험가능지역에 경고판설치여부, 구명조끼 비치여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활동을 펼쳤다.

고창을 노동저수지는 전불갈이 형성되어 있어 이른새벽 운동을 하고자 찾는 주민들이 많아 이에 따른 구명조끼등 비치여부 점검하였으며, 고수은사계곡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